

아케엠주보

Association of Korean Catholic Communities of the Middle East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연합회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루카 12,40)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AKCCME) 한국어 미사 시간]

수호성인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St. Francis of Assisi)

카 페 <https://cafe.daum.net/akccme>

회 장 우종관 대건 안드레아 (+971 50 940 7275)

편집/사무국장 박정인 미카엘라 (+971 56 701 7702)

발행인/전담사제 김성인 미카엘, OFM (+971 58 568 7985)

사 무 실 +971 2 446 1929

주 소 St. Joseph's Cathedral, Al Mushrif W24-02

P.O. Box 54, Abu Dhabi, UAE

관할지역 리비아, 모로코, 사우디 아라비아, UAE, 이란,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

- **UAE 아부다비** 성 요셉 성당:
첫째/셋째 토요일 12:00 *
- **UAE 두바이** 성 프란치스코 성당:
둘째/넷째 주일 14:00 *
- **UAE 루와이스/바라카** 성 요한세례자 성당:
둘째/다섯째 토요일 17:30
- **쿠웨이트**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5:00
- **카타르** 묵주의 성모 성당: 둘째 금요일 15:00
- **이집트 카이로**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1:00

* 미사가 없는 주에는 '공소 예절'이 진행됩니다.

오늘의 전례: 연중 제19주일

오늘은 연중 제19주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산 아브라함은 하느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여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지녔던 것과 같은 믿음이 타오르게 하시어, 아버지의 시간을 깨어 기다리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 **입당송** 시편 74(73), 20. 19. 22. 23 참조
- **제1독서**
지혜 18, 6-9
- **화답송** 시편 33(32), 1과 12. 18-19. 20과 22(◎ 12 L 참조)
 -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을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니네. ◎
 -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
- **제2독서**
히브 11, 1-2. 8-19
- **복음환호송** 마태 24, 42. 44 참조
 -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 ◎ 알렐루야.
- **복음**
루카 12, 32-48
- **보편 지향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희망이신 주님, 세상에서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 하늘 나라 본향을 갈망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2.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로자이신 주님,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저희 민족을 굽어살피시어,
주님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교류하며 화해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3.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호자이신 주님, 오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살피 주시어, 고통을 줄여 주시고,
좀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으로 힘을 얻게 하소서.
 4. 중동 한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원자이신 주님, 저희 중동 한인 공동체를 돌보아 주시어, 굳건한 믿음으로
언제나 깨어 준비하여 살아 숨쉬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영성체송**
시편 147(146-147), 12. 14 참조

[아캠] 전쟁 피해 가정 및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가난기금 집행 보고

올해 상반기까지 공동체 교우 여러분의 사랑으로 적립된 아캠 가난기금 17,146.00 AED 중 일부를 아래의 내용으로 집행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1) 이란 공동체 전쟁 피해 교우 가정 지원 3,673.00 AED(미화 천불 해당)
: 테헤란 공동체 대표 최정아 마리아 막달레나 자매님 전달

(2) 산청성심원 폭우 및 산사태로 인한 수해 성금 3,687.00 AED(미화 천불 해당)
: 산청성심원 홈페이지 안내 계좌로 송금을 통해 전달

♥ 산청성심원 수해 복구 지원에 개인적으로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계좌 안내: **농협 887-01-055068 (재)프란치스코회산청분소** (문의: (+82) 55-973-6966)

※ 항상 따뜻한 관심과 후원을 보내주시는 아캠의 여러 형제자매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아라비아 대목구] 2025년 젊은이들의 희년 순례

7월 29일 개막미사를 시작으로 젊은이들의 희년이 시작되어 8월 3일까지 전 세계의 청년·청소년 순례자들을 위한 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남아라비아 대목구에서도 파울로 마르티넬리 주교님과 김성인 미카엘 신부님, 아누 신부님(제벨알리), 곤프레이 신부님(라스알카이마) 그리고 90여 명의 청년 순례단이 참석하여 희년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종 레오 14세] 8월 기도 지향

8월: 상호 공존을 위하여

공존이 더욱 어려워 보이는 사회가 민족적, 정치적, 종교적, 또는 이념적 이유로 인한 대립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이사악의 제사, 카라바조 작

한발자국 내딛은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묵상할 때 늘 떠나는 것에 초점을 두었는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묵상을 하고 싶었다. 그러던 중 김미소진(마리아) 작가의 「그래도 앞으로 가보지, 뭐!」를 읽으면서 마음에 두려움을 간직한 채 하느님을 믿고 삶을 한발자국씩 내딛는 작가와 아브라함이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했다. 지금의 편안한 안주에 대한 미련, 미지에 대한 두려움, 갈까 말까하는 망설임, 그런데 그때 내딛는 그 한발자국이 인생의 지도를 바꿔버린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공경하는 성조(聖祖)이며 하느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인물이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아브라함의 일생 최고의 시련, 아들 이사악 봉헌을 결정했을 때 그는 절대적인 복종자에서 한발 더 나아간 신앙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신앙은 때로는 이론이나 합리로 설명이 불가능한 초월적인 것이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칼데아는 당시 최고의 문명 도시였다. 갑자기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요지는 “고향, 아버지가 있는 이 땅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대신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네 편이 되어줄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이 시대에 고향을 떠나는 것은 죽음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리고 여태껏 이론 모든 것을 버리고 이름 모를 낯선으로 떠난다? 성경의 행간(行間)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상상할 수 있을까? “왜 나만 갖고 그래?” “옆집 아무개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되나?” “하느님 말씀만 있지 뭐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데 미치겠구먼!”

결국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말씀만을 믿고 부모와 고향과 이별한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일행은 네겟 지방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들어 풍요로운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 그런데, 이집

트의 파라오는 아내 사라에게 흑심을 품었다. 눈치 빠른 아브라함은 자신과 가족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 빠지자 아내를 동생이라 둘러댔다. 생존 앞에서는 체면 등 어떤 가치도 의미 없다.

정작 큰 문제는 나이 지긋한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사람은 하느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초조해지면 판단력을 잃는다. 사라를 가장 충성스런 여종 하가르를 아브라함의 침소로 들여보냈고, 다행히 아들을 낳는다. 하가르는 본색을 드러내고 기고만장해졌고 아브라함의 집안은 갈등과 싸움의 연속이었다. 목숨에 위협을 느낀 하가르는 아들과 광야로 도망쳐 피를 토하며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백 살에 사라에게서 아들 이사악을 안게 된다. 그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데 행복도 잠시뿐 인생 최고의 시험에 들게 된다.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이사악을 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은 일생의 가장 큰 시련에 빠졌다. 그는 이사악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3일 동안 인생의 가장 긴 길을 걷는다. 혼란과 갈등, 고민 끝에 아브라함은 결정했다. 이사악을 바치기로.

아브라함은 일생을 살면서 모든 건 결국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느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신앙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무척 고단했고 약한 인간이었다. 그러나 그는 부족한 채 끊임없이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인이었다.



2025년 '희년' 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는
세세 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Franciscus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번역)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현존 50주년 준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이집트 종살이하던 당신 백성을 부르시어,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어 주셨나이다.(탈출 13,21)

참된 자유를 찾아 광야를 걸었던 2000년 전 당신 백성처럼
이곳 광야에서 평화의 사도인 성 프란치스코와 함께
현존 50주년을 향해 순례하는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를 굽어살피시어,

말씀과 성체 안에서 당신을 만나고,
이웃 안에서 당신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시며,
모든 어려움 중에
당신의 모친 마리아의 보호를 찾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서른 배, 예순 배, 백 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마침내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 뵈옵는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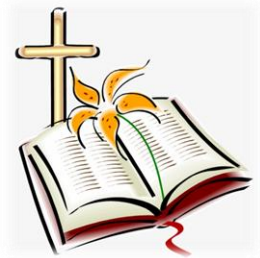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아라비아의 성모 마리아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복음화 를 위한 기도



○ 만민의 임금이신 주님,
죽음으로 진리를 증언한 선조들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의 빛을 밝혀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 이제 저희도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
온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소서.
또한 세계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인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 평화를 바라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땅에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게 하소서.

◎ 아멘.



평화 의 기도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2025년 6, 7 월 아캠 회계보고

(단위: AED/소수점 버림)

구분	수입			지출			잔액
	내용	금액	비고	내용	금액	비고	
아캠 기금	전월 미월금	23,955	(2025년 5월 미월금)	성무 활동비	4,000	(아캠 전담 사제: 6,7월)	
	후원금	단체		출장비	5,000	(아캠 전담 사제 휴가)	
		개인	1,000	가난 기금	120	(6,7월 아캠기금 5% 적립)	
	납입금	아부다비	2,400				
		두바이					
		투와이스/바라카					
		카타르					
	기타 수입금 (이자 및 기타)						
			27,355				9,120
							18,235
가난 기금	전월 미월금	16,526	(2025년 5월 미월금)				
	모금액	단체	120				
		개인	500				
			17,146			0	
							17,146
수입 합계			44,501	지출 합계			9,120
							35,381

< 아캠 후원금 상세 내역 >

개인: (1) 김화영 라우렌시오(가난기금) (2) 박효진 세실리아

아캠 기금 납부 및 후원 안내

아캠 기금은 아캠 규정 '제15조 거룩한 직무를 위한 비용'에 따라 전담 사제의 성무활동비, 사무국 운영 및 한인 공동체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며, 중동지역 내 한인 공동체들의 '자발적 납부와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 인터넷 बैं킹 접수

Account Holder Name: JEONGIN PARK
Bank : Emirates NBD / Account Number: 0999501772101
IBAN: AE52 0260 0009 9950 1772 101
(송금시 reference에 이름 기재 부탁드립니다.)



 ARAKO 두바이 한인 부동산 Sale / Rent/ Off Plan 상담  오픈챗  최은정 셀레나 (055. 360. 0733)	SUZE 수제과일청 각종소스류 • 100% Handmade • 100% Fresh Fruits • 100% Organic Sugar 홈카페 / 내,외국인 선물 / 단체주문 박혜정 안젤라 (058. 580. 2814) /  : angela7204	SGE 두바이삼성학원 강남 삼성학원 두바이 분원 1. 아부다비/두바이 국제학교 2. 현지 대학 입학 대행 서비스 3. 특례 입시 전문 4. 성인반 영어 프로그램 정미숙 라파엘라 (+971) 50 461 3991 /  : 두바이삼성학원
---	--	--